우암학원 창학 75주년
WCC 세계적인 전문대학 선정!!
전남과학대학교
CHUNNAM TECHNO UNIVERSITY

光州日報
SINCE 1952

아름다운 금융, 다채로운 금융, 함께하는 금융
평생어부바
광주문화신협
대표번호 1644-7990
본점·여신사업부·문흥지점·양산지점·운암지점·매곡지점·첨단지점·동림지점·동광주지점·각화지점

1952년 4월 20일 창간 제22550호 1판 대표전화 (062)222-8111 kwangju.co.kr 음력 6월 11일 2025년 8월 4일 월요일

전남도 '에너지 수도 조성' 탄력 받는다

정부, '차세대 전력망 사업' 대상지 선택…'RE100 산단' 유력
김영록 지사 "23GW 규모의 재생에너지 발전단지 구축하겠다"

정부가 '국가 에너지 대전환 프로젝트'의 1단계 사업인 '차세대 전력망 구축 사업' 대상지로 전남을 선택하면서 전남도의 대한민국 에너지 수도 조성을 향한 발걸음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새 정부의 에너지 전환 프로젝트 2단계 사업 격인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 산단 조성' 대상지로도 전남이 유력시 되면서 재생에너지 거점도시로의 도약이 현실화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3일 전남도에 따르면 정부가 최근 전남을 사업대상지로 확정한 차세대 전력망 구축 사업은 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전력을 인접한 산업단지, 공항 등지에 공급하고 남은 전력은 저장해 필요시 사용가능한 소규모 전력망을 구축하는 게 골자다. 이는 전남지역의 부족한 전력 계통 문제를 극복하는 등 전남의 재생에너지 확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차세대 전력망 구축사업은 정부가 2000억원의 예산을 이미 확보한 데다 단기 계획인만큼 사업 효과를 빠르게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전남은 이 사업을 발판으로 23GW(기가와트) 규모의 재생에너지 발전단지를 구축하고 인구 50만의 '서남권 에너지 혁신성장벨트'와 '에너지 기본소득 시대' 개막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차세대 전력망 혁신기지와 함께 대한민국 에너지 대전환의 새 역사를 전남도에서 시작할 것"이라며 에너지 산업을 '제2의 반도체 산업'으로 성장시켜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발표한 차세대 전력망 구축 사업은 정부가 앞서 발표한 RE100 산단 조성과 함께 '2050년 국가 에너지 대전환 프로젝트'의 한 축이다. 정부는 전력망 혁신 계획을 단기, 중기, 장기 등 3단계로 구분해 추진하고 있다. 차세대 전력망 구축사업은 단기, RE100 산단 조성은 중기, 에너지 고속도로는 장기 계획에 해당한다.

또 정부가 사업 대상지 발표와 산단 구조 개선, 인재 육성 등 다방면에 걸친 구체적인 청사진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이번 정부의 발표는 산업구조 개편을 비롯한 전남도의 재도약을 의미한다는 해석도 나온다.

대통령실은 전남의 철강·석유화학 산단을 마이크로 그리드(소규모 독립전력망) 산단으로 조성하고 대학 캠퍼스와 스마트팜, 공항, 군부대 등에도 마이크로 그리드를 구축하겠다고 했다. 또 한국에너지공대와 전남대, 광주과학기술원 등을 중심으로 'K-그리드 인재 창업 밸리' 조성을 통한 세계적 수준의 인재 양성 계획도 내놨다.

재생에너지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도 주목된다. 전남도가 선보인 '주민 참여형 이익 공유 모델'을 정부가 직접 추진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주민 참여형 이익 공유는 주민이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의 주체로 참여해 발전 사업 과정에서의 갈등을 없애고 전기 판매 수익을 발전사와 나누는 전남도만의 지역 소멸 대책이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1일 '전남 차세대 전력망 구축 사업'에 대해 "전남도가 '2050 국가 에너지 대전환 프로젝트'의 중심축으로 우뚝 서는 역사적 순간"이라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어 "이번 정책을 발판으로 명실상부 대한민국 에너지 수도를 향한 걸음에 더욱 속도를 내겠다"며 "2030년까지 총 23GW 규모의 신규 재생에너지 발전단지를 구축하고 이를 토대로 인구 50만의 '서남권 에너지 혁신성장벨트'를 조성하겠다. 또 도민과 에너지 발전 수익을 공유하는 2030년 연간 1조 원의 에너지 기본소득 시대 개막에 더욱 매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광주전남지역에 비가 내린 3일 광주 북구 중흥동의 한 건널목에 비옷을 입은 한 시민이 자전거를 타고 이동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폭염 뒤 폭우…광주·전남에 80~150㎜ 쏟아진다

수해 복구 중에 다시 많은 비

지난달 광주·전남 지역에 내린 '괴물폭우'로 인한 수해가 복구되지 않은 상황에서 또다시 많은 비가 쏟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관련기사 7면〉

광주지방기상청은 "5일 오전까지 서해상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저기압 영향을 받아 광주와 전남지역에 80~150㎜의 많은 비가, 전남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에 200㎜ 이상이 내리겠다"고 3일 예보했다.

기상청은 광주·전남에 3일 밤부터 4일 오전 사이 시간당 최대 30~50㎜의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강한 비가 쏟아지고, 남해안과 지리산부근에는 50~80㎜의 세찬 비가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3일 오후 6시 10분을 기점으로 순천, 무안, 신안, 흑산도·홍도에 호우 경보가 발효됐으며 광주와 전남 19개 시·군(나주·담양·곡성·구례·장성·화순·고흥·보성·여수·광양·장흥·강진·해남·완도·영암·함평·영광·목포·진도)에 호우주의보가 발표됐다.

4일 새벽부터 전남 남해안에는 순간 풍속 초속 15m 안팎의 강한 바람도 불겠다.

비가 내리면서 폭염특보는 해제됐지만, 습하고 체감온도가 높은 날씨가 이어지면서 당분간 최고 체감온도가 33도 안팎으로 올라 무더울 전망이다.

5일부터는 비가 소강 상태에 접어들겠으나, 오후에는 곳곳에서 5~40㎜의 소나기가 올 것으로 예보됐다. 6일부터는 다시 비가 예상된다.

기상청 관계자는 "짧은 시간에 강한 비가 내리면서 하천의 물이 갑자기 불어날 수 있으니 접근을 자제하고 안전한 곳으로 대피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양재희 기자 heestory@kwangju.co.kr

민주당 정청래 신임 당 대표 선출

호남 권리당원 66.49% 득표
"검찰개혁 등 추석 전 마무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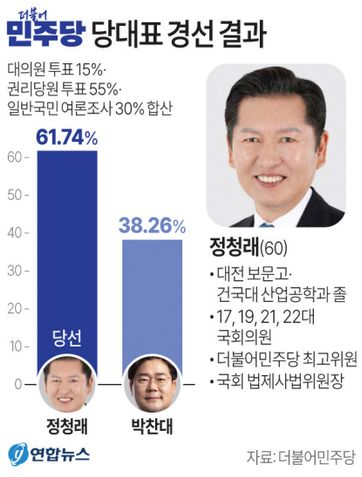
더불어민주당 신임 당 대표에 정청래 의원이 선출됐다. 〈관련기사 3면〉

정 신임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첫 여당 대표로서 대통령실과 함께 국정 운영에 손발을 맞추게 됐고, 내년 지방선거도 총 지휘한다.

일반 당원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은 정 의원이 민주당 당 대표에 선임되면서 광주·전남 정치지형에도 큰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 지도부 교체에 따른 당 운영 변화와 함께 일반 당원이 당 투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경선 당락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되기 때문이다.

3일 민주당 중앙당에 따르면 전날 경기 고양 킨텍스에서 열린 전국 임시전국전당대회 당대표 경선에서 정 후보가 전체 득표률 61.74%로 새로운 당 대표로 뽑혔다. 박찬대 후보는 38.26%를 얻었다.

민주당 당 대표는 권리당원(55%)·대의원(15%) 투표, 일반 국민 여론조사(30%)를 합산해 선출됐다.



정 신임 대표는 권리당원 투표와 일반국민여론조사에서 박 후보를 앞질렀다.

전국 권리당원 11만 732명 중 63만3042명이 투표해 77.79%의 투표율을 보였다.

정 대표는 42만 847표를 얻어 66.48%로 32.55%(21만 2195표)를 득표한 박 후보와 많은 격차를 벌였다.

정 대표의 승리 과정에 호남의 지원도 한 몫 했다. 전국에서 가장 많은 권리당원을 보유한 호남에서는 36만 5892명 중 51.24%(18만7472명)가 투표해 정 대표가 66.49%(12만4657표), 박 후보가 33.51%(6만2812표)를 득표했다.

전국대의원 선거에서는 박 후보가 53.09%(6951표)를 득표해 46.91%(6142표)를 얻어 정 대표를 약간 앞질렀다.

하지만 일반 국민여론조사에서는 정 대표가 60.46%를 득표해 39.54%를 득표한 박 후보를 앞질렀다.

정 대표는 "민주당을 더 강력하고 유능하게 만들겠다"면서 "검찰·언론·사법 개혁을 추석전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주요한 당 의사 결정은 당원의 뜻을 물어 결정하고 전 당원 투표를 상설화하겠다"면서 "컷오프를 없애고 공정한 경선을 보장해 지방선거에서 가장 강한 후보를 만드는데 당력을 집중하겠다. 내년 지방선거 승리에 모든 것을 걸겠다"고 덧붙였다.

정 대표는 이날 당 대표 비서실장에 한민수 의원, 정무실장에 김영환 의원을 각각 내정했다.

한편 이날 황명선 의원은 최고의원으로 선출됐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괴롭힘에도 기댈 곳 없는 외국인 노동자 ▶6면
KIA 김도영, 8월 순위싸움 선봉에 선다 ▶18면
광복 80년 - 사라져가는 전쟁의 상흔들 ▶22면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605-1115